

## “동문들의 유대감 강한 곳은 정담회뿐이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조단스튜디오



김진하 회장은 벤처캐피탈을 경영하고 있다. 'Value up 할 수 없다면, 투자하지 않는다'가 회사의 모토다.

아산재단 장학생들의 모임은 '정담회'(情談會)로 불린다. '마음이 담백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가 즐겨 사용한 '담담한 마음을 가집시다. 담담한 마음은 당신을 굳세고 바르고 총명하게 만들 것입니다'라는 말에서 따왔다.

대학을 졸업한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은 '정담 동문회'로 구분해 부르는데, 2019년 2월 제14대 정담 동문회장으로는 김진하(54)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주) 대표이사가 선임돼 1년 동안 열정적으로 동문회를 이끌었다.

### 뜨거운 호응 이끌어낸 창업 세미나

김진하 회장은 “동문회의 고문단과 명예회장님들로부터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회사 업무가 많아서 잠시 망설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아산장학생으로서 누린 혜택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다. 우리 장학생들은 아산재단으로부터 등록금 지원만 받은 게 아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면 선배 장학생들이 흔쾌히 지갑을 열었고, 고민거리가 생기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 재단과 대기업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지만, 선배들이 끈끈한 유대감으로 뭉친 곳은 아산재단이 배출한 정담회가 유일하다. 그동안 선배들에게 받은 것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회장수락 이유를 밝혔다.

벤처캐피탈을 운영하는 김진하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저녁 7시, 서울 역삼동에서 전공을 살린 행사를 개최했다. '창업, 그리고 우리'라는 이름의 창업 관련 세미나였다.

식사 중심의 단순한 친목모임보다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될 만



아산장학생 등산모임인 '되지기'가 계룡산 감사를 찾았을 때. 왼쪽 빨간 모자 쓴 사람이 김진하 회장이다(왼쪽). 2019년 6월 정담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창업 세미나 모습(오른쪽).



한 행사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정담 동문회 단체채팅방과 밴드에 세미나를 공지하자 창업을 꿈꾸는 20~30대만이 아니라 인생 이모작을 계획 중인 40~50대 등 6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송은강 캡스톤파트너스 대표 등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캐피탈 업계의 유명 인사들이 강사로 나섰다. 강연 뒤에는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학업 성적이 우수했던 아산장학생 출신답게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져 행사장을 뜨겁게 달구었다. 세미나가 끝난 뒤에는 아산나눔재단이 운영하는 마루180 옥상으로 자리를 옮겨 조촐한 파티를 열면서 회원들의 친목을 다졌다.

“정담회의 전통이 회비를 걷지 않는 것이다. 사회에 먼저 진출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사준다. 회비를 걷다보면 자칫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는 동문들의 반응이 무척 뜨거워서 2020년에도 한 번 더 열려고 준비 중이다.”

## 대학 때는 정담회 총무로 활동

김진하 회장은 대학 2학년이던 1987년에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됐다. 1학년을 제외한 학부 3년만이 아니라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과정을 밟던 2년 동안에도 아산장학생 신분을 유지했다. 당시에는 아산재단이 요즘처럼 성적우수, 재능나눔, 나래, 다솜 장학생 등 여러 부문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지 않고 성적우수장학생만 선발할 때였다.

“아산장학생 선발 기준이 엄격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우리 학교(서울대)의 경우 평점 만점이 4.3이었는데, 4.1 이상이 돼야 신청할 수 있었다. 내가 소속된 중문학과만이 아니라 인문계 전체에서 내가 유일하게 선정된 걸로 안다. 해병대 구호처럼 누구나 될

수 없었기에 아산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이 엄청 강했다.”

아산재단의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만 전념한 점 외에 장점은 또 있었다. 1980년대는 대학에서 민주화 요구 시위가 붓물처럼 터지던 혼란의 시기였고, 반대급부로 탄압도 심해서 숨이 막힐 듯한 분위기였다.

“아산장학생들은 여름방학이면 농활, 즉 농촌봉사활동을 갔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장학생들이 ‘되지기’라는 등산모임을 결성해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으로 산행을 다녔다. 이 농활과 되지기는 꼭 놀린 숨통을 틔워주는 낭만의 공간이었다. 덕분에 학창생활을 무사히 마쳤다.”

“아산장학생 활동이 유일한 탈출구였다”는 그는 “다양한 전공을 가진 전국의 장학생 동료, 선후배들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배웠다”면서 총무를 맡아 정담회를 이끌기도 했다.

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 재학생으로서 정담회 활동에 열성이었던 그가 동문회장을 맡은 건 지금히 당연한 일로 보인다. 회장 임기 마지막 해인 2020년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진하 회장은 경동고를 거쳐 서울대 중문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했다.

동양그룹에서 중국 투자팀장과 상해 대표를 역임한 뒤 린드먼 아시아 인베스트먼트(주)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중국 및 한국 등 아시아 지역 투자에 특화된 벤처캐피탈(VC)이자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린드먼 아시아는 ‘관계사 포함한 운영 자산 1조 이상’ 등의 실적으로 금융업계에서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동갑내기 부인과의 사이에 딸이 둘 있다. 🌟